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형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32호 현대불교
2009년 5월 20일(음력 4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여러분은 오로지 자기 주인공만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쁘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진리는 어느 사람이든 다, 나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한 진리예요.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진짜 부를 수 있는 노래랍니다. 젊은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불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보이지 않는 데서나 보이는 데서나 서로 말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敎)예요. 일체가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마음의 인연줄이라는 줄은 보이지 않아요.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설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지만 불이 들어오는 거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인연줄도 역시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 법계라고 하죠. 그것은 이따 이따 가고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불바퀴의 근본이, 우리가 수십억 겁을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한다면, 지수풍(地水風) 세 가지가 서로 압축에서 휘적거리고 서로 만나서 둥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바로 온기가 생겨서 광(光)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광력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겼죠. 그래서 지수화풍 그거 원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흙과 물을 개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다 구워서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지수화풍으로 등장할 한 거죠.

불교라는 것이 너무 엄청납니다. 서로 공생 공융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리가 전체의 진리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떨어졌어도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차원에 따라서 이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고 저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모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세상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도 서로 교류를 하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교류를 하고, 핀 꽃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나무들도 무정물도 생물도 식물도 다 서로 대화를 하고 돌아갑니다. 대화를 하고 돌

아가는 게 즉 교(敎)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풀포기 하나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외국에 가니까 블랙홀이라고 합디다. 작은 거든 큰 거든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불바퀴라 이겁니다.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삶에 의해서 생활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잔다 깬다, 일한다 앉는다 잔다, 번소에 간다 먹는다 하는 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이 고정됨이 있습니까?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죠, 만났고 고정됨이 없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쉴 사이 없이,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그렇게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의 근본도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살이 만사가 다 우리들 마음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세상스러워하거나 거짓으로 알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만나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아홉 살에 남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엄마 없는 두 살이 된 아이가 있고 재혼한 부인이 어린애를 낳아서 그 나이가 된 아이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는 내가 말고, 한 아이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맡아 가지고 있는데 밤이면 울고 그러니까 항상 등에다 업고 잠을 재웠어요. 어린애가 울면 같이 울고 그랬죠.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때 일제시대 때는 물 한 지게에 고런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두 지게씩이죠. 그때는 먹을 것도 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 빠지면 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남의 집에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신발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게다가 다 닳아 빠져서 반쪽 남은 거를 신고 물을 길러 가니까 이게 미끄러워서 툭하면 넘어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새끼를 짚곤 매 가지고 아홉 살 먹은 소녀는 그렇게 지냈던데요. 물지게를 지는데 하루 아홉 지게씩을 져와야 그 집에서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탓도 할 수 없고 남의 탓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을 잘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바로 상대가 없을 거예요. 가정도 없고 상대도 없고 이런 동지도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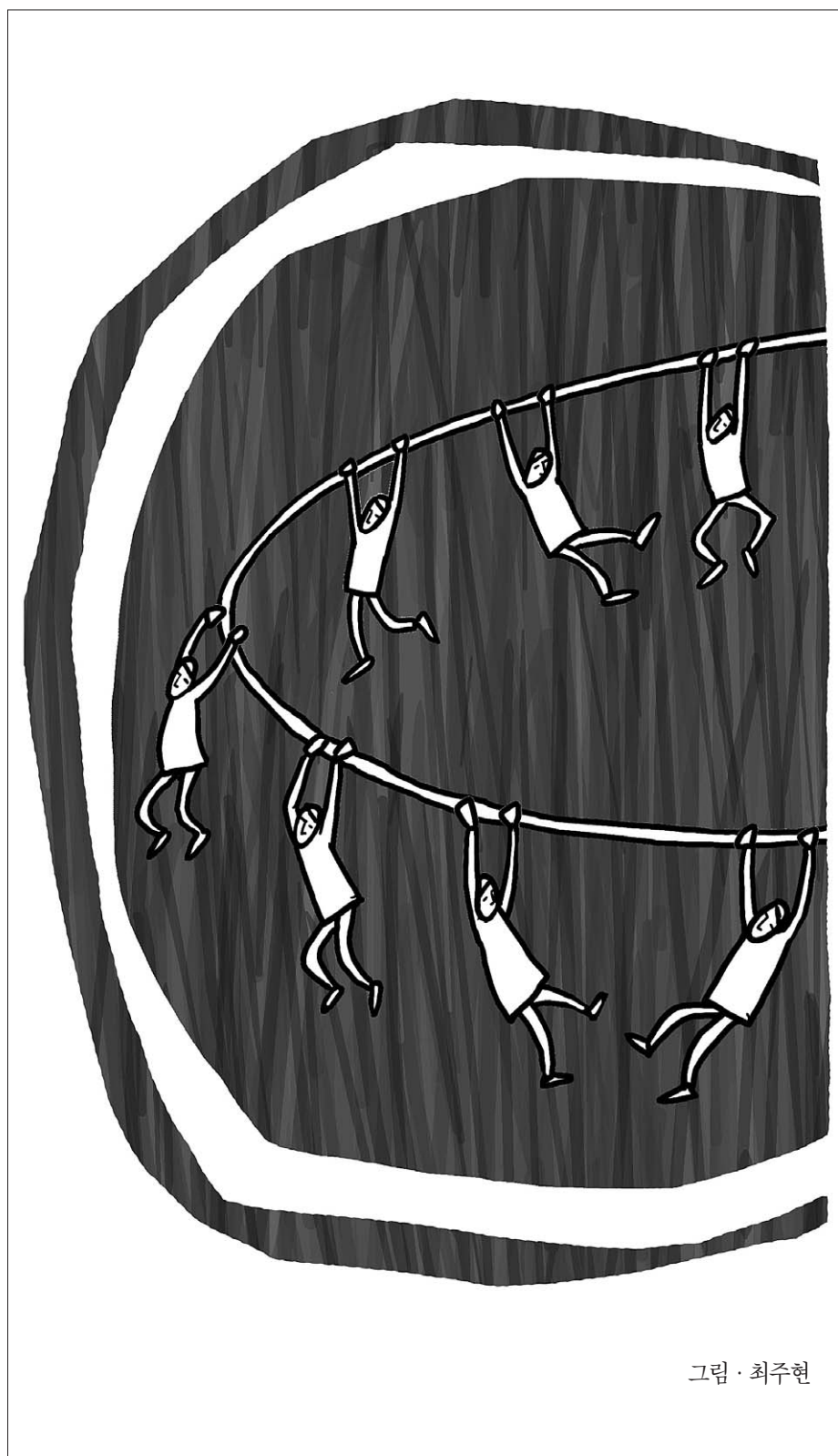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고 잘하고 잘못하고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낳기 때문에 부딪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했던 못했던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긴 탓이죠. 남을 나무라기 이전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수십억의 생명들, 모습들,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그렇게 인연이 된 줄 아십니까. 그 의식들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에게는 몸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자 난자와 나의 영혼이, 즉 삼합이 한데 합쳐져야만 인생으로 화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과거에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안 지었든지 그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자기의 영혼에 부착이 돼서, 모두 한데 합쳐서 이렇게 인간 하나가 됩니다. 그럼 그 과거의 업은 지나갔으니까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몸뚱이 속에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몸뚱이 속에 생명과 의식, 모습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그 자체의 의식들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러죠.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그 여러 의식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여러분의 속명통에서, 즉 컴퓨터에 입력이 됐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가지고 나온 업식이, 그 의식들이 그만 여러분을 총동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하나가 '이러하라' 하면 이러하고 '저러하라' 하면 저러하고, 화가 나게도 하고 화가 안 나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꾸 총동원합니다. 수십억이 들어 있으면서 차례차례로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나올 때 누가 될 일이라면 '야! 이렇게 해서 돼? 내 영원한 친구여, 이렇게 이끌어 가서는 안 되잖아.' 하고 거기다 말리고 '잘 이끌어 가봐. 좀 더 삶에 보람이 있고 자유스럽고, 광적으로 쉼장조력을 갖게끔 해 줘 봐.' 하고 거기다가 말려 놓으세요. 또 안되는 거라면 되게끔 거기다 말려 놓고 거기서만이,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잘 이끌어 줄 수 있고, 아프면 병이 낫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니까요.

☞ 26면으로 계속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축적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대구교구종무원 교육원에서는 불교의식 강의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재가불자님께서는 불교기초교리와 함께 강의합니다.

1. 교육기간 - 1년 「수시모집」
2. 교육내용
 - ◇ 초급과정 - 시물, 예불편, 불공편 등 불교기초교리(재가불자)
 - ◇ 중급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조전점안, 상단권공, 중단권공, 시식.
 - 범패 - 거불, 복청계, 환좌계, 가영향수나열, 도랑계, 다계 등
 - 작법 -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 등 도랑계, 다계 등
- ◇ 천도재 (49재) 의식을 중점 강의합니다.
3.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 교육장소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설법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629-21)
5. 문의전화 - 053)622-3702(주) 053)621-7521(야) 011-324-5133 (자세한내용은 문의바랍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문화원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423-중-5041호

統合佛敎儀式大典 出刊

총 12권 2100 페이지
가격: 전권 200,000원
크기: 4x6배판(19x26cm)
본문번역의사전 / 총 1권 2,745 페이지
가격: 100,000원

사실구제편	고사편	추진인
1. 입재 불공의식	○ 회엄시식	1. 가경 안택의식
2. 삼우제 불공의식	○ 삼우제시식	2. 사무실고사시식
3. 초재 불공의식	○ 지장시식	3. 지동처고사시식
4. 이재 불공의식	○ 보현시식	4. 선박고사시식
5. 삼재 불공의식	○ 문수시식	기타편
6. 사재 불공의식	○ 미륵시식	삼재살해소의식
7. 오재 불공의식	○ 보문시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8. 육재 불공의식	○ 묘음시식	
9. 칠재 불공의식	○ 관음시식	

統合佛敎儀式大典

문의전화: 055)747-8350, 017-552-7350
계좌번호: 농협 803-02-752331 예금주: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김묘경

buddhanews.com

한 철 나는 동안 영원한 내 마음의 차원을 길러놓아야

25면에서 계속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거 못 봤죠? 운전수는 위로는 기름을 넣고 아래로는 차를 끌고 다니죠. 그렇듯이 그 운전수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죠. 마음의 주인이 있으니까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기고 거기서만이 잘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안 되게끔 하는 것도 거기다. 그러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라는 거죠. 안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또는 잘되게끔, 상스럽고 내 마음이 참 잠잠해지고 아주 좋게 될 때는 감사하게 거기 맡기고요.

자기 마음의 주인밖에 없어요. 어디 믿을 데가 없어요.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또는 스님이나 신부, 목사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고깃덩어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근본을 믿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그 근본, 한마음 주인공!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준다는 얘깁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만이 이끄는 힘이 있는 거죠. 바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부처님 아버지여!' 이렇게 찾는 것은 기복이고 미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바깥으로 찾는 것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름일 뿐이니까요.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으니깐 나부터 알아야죠. 내 집부터 전화를 봐야 남의 집에서 전화도 오고 전화도 할 수가 있죠. 내 집에 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전화 올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앞드러졌으면 그 자리에서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인생의 진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적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기가 나쁜 짓을 했던 좋은 일을 했던 과거에 살던 그 차원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 그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충동질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스려서 '주인공!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 길을 잘 인도해서 빛나게 살게 해.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서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 보세요.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남자 여자, 늙고 젊고 그것을 막론해 놓고 영령입니다. 그대로 영령이 돼서 수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을 벗어 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애쓰는 것이니 더욱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죠. 마음은 체가 없는 반면에 차원이 높게 어디든지 창살을 벗어나서, 이런 '이 방통 안을 벗어나서' 이 소립니다. 어디든지 마음

은 길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가고 올 수가 있는 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오신통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그 업적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입력된, 즉 시체말로 비유를 하겠습니까. 카세트에 여러분이 살던 노래를 하나 가득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카세트에다가 지금 현재의 노래를 다시 넣었을 때는 앞서의 노래는 다 없어졌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악업 선업은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것을 맡겨 놓으세요.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집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를 영

리고 내면세계에서만 여러분의 앞날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카세트에 녹음하는 것과 같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흠뻑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지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는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뚱이로 문을 통해서 다니는 자는 소인이요 중생이요, 문을 통하지 않고 벽이나 붓잡아 아무 데로나, 마음대로 다니는 자는 바로 부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말을 뒤죽박죽 하는데, 여러분을 보는 순간 너무 안타까워서 말할 의욕도 다 없어버렸습니다. 오직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시다. 허허... 우리가 '자비 자비' 하고 '사랑 사랑' 하지만 사랑이 뭐 말라빠져 죽은 게 사랑입니까? 꼭

로 우리가 서로 통하고 말하는 것이 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죠. 불교의 진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따라서 주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데 정신계의 50%, 물질계의 50%가 서로 상응하고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의 주인공 그 자체가, 바로 무심과 유심이 서로 작용을 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전자와 전자가 서로 만남이 있어야 불이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이런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인연의 법칙이요.

여러분한테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의 한마음 주인공만을 믿고, 오로지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준다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 주인공, 당신이 잘 이끌어 줘!'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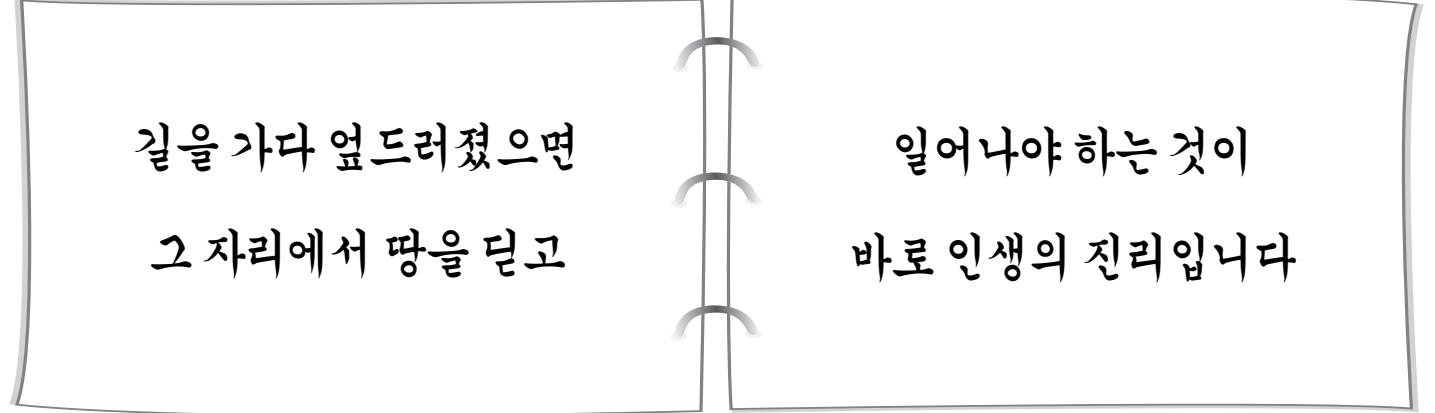
창조해 내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진짜 빛나는 일꾼들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캄핑 온 거나 같습니다. 걸망 하나 짊어지고 나왔다가 한 철 나고 또 걸망 하나 짊어지고 갑니다. '걸망을 또 짊어진다.'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산 그대로 이 모두가 반영돼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한 철 낫다가 가는 그 한 철 동안에 영원한 내 마음의 차원을 길러 놓는다면 길러 놓는 대로 주어질 거고 길러 놓지 못했다면 길러 놓지 못한 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요다음 생애로 나와서 주어진 차원대로 살 겁니다. 내 잠깐할 사이에 요다음 생애 되고 억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주인공을 믿고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하면서 맡겨 놓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 하여튼 인연이 있으면 요다음에 또 만나겠지만 여러분 모두 그 체험을 해 본 뒤에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가가 됩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나가더라도 가정도 다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듣는 귀도 달라질 것이고, 모두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한 생각에 모든 창조를,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다 이룩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학생에게 이런 도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무슨 까닭에 쫓겨나지 쫓기다가 다급하니 까 후미진 데 있는 우물에 들어갔더라고요. 옛날에는 돌로다가 쌓았죠. 우물로 들어가서 몸을 감추고서 다 지나간 뒤에 나오려니까 당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음 친구야! 나를 살려줘. 하지 않느냐!'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사람이 목이 말라서 두레박을 얻어 가지고 부지런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물로 후미진 곳에 있었는데 부지런히 와서 물을 퍼오고 보니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레박 줄을 잡고 나오게끔 해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기 친구가 '야, 내가 나가서 빨리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꼭 붙들고 있어.' 이라고선 그 몸뚱이 거기다 두고 자기 마음의 주인, 영원한 친구가 나가서 사람을 불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대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5월 20일 국내지원위원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끌고 가는 그 자체, 그것이 과거도 끌고 가고 지금 현재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못 냈기 때문에 악과 선이 두루마리로 돼서 입력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이 있는 것도 거기에서 순종이 현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카세트에 담긴 것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새 마음으로, 즉 말하자면 '마음의 주인! 너밖에 나를 이끌어 갈 수 없어. 영원한 친구!' 하고 모든 것을 맡겨 놓으라는 영인입니다. 영원한 친구라고 해도 돼요. 주인공이 영원한 친구니까요. '영원한 친구! 너밖에 나를 이끌어 갈 수 없어. 너밖에 나를 돌봐줄 수 없어.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빛나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하는 거는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난 거하고 뭐, 뭇 누는 거나 자고 깨는 거나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다 거기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자기가 자길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지, 바깥으로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온통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은 영원히 이끌어 주는 주인입니다. 진짜로 자기 내면세계에서 찾으세요. 내면세계를 믿으세요! 그

조건이 있는 사랑을 모두 하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해 보세요. 대가 없는 사랑 말입니다. 모두가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조건 없이 해 보세요.

어떠한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 탓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탓이다.' 그리고 '한마음 주인공! 당신만이 얽히고설킨 이것을 다 풀어 줄 수 있어.' 하고, 울더라도 거기를 붙들고 울어야만 합니다. 이 말 저 말을 끌어다가 하면 오히려 더 신란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로지 자기 주인공만 붙들고 사세요.

여기 스님이 그 세 구절을 여러분한테 다 써 주셨을 겁니다. 거기에도 있지만, 주인공! 자기 영원한 친구! 여러분이 그 도리만 찾는다면 여러분의 앞날이 참 밝아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한 자기 친구를 찾아서 몸뚱이의 자유권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권을 얻을 때 몸뚱이는 스스로 자유권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안팎이 다 잘릴 것입니다. 마음도 바뀌질 수 있고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도리를 배우는 데는 질문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진리를 불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 근본이 불이요, 바

뀌어서 거기 놓으면 그대로 천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정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팩시밀리라는 건 신축통이라고 비유하겠습니다. 가고 울이 없이 가고 온다. 또 천이통, 이것은 무전통신기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천안통, 즉 말하자면 천체망원경이라고 비유해도 되죠. 속명통, 이것은 바로 컴퓨터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그리고 타심통, 남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것은 탐지기라고 해도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 한마음 주인공에서 관여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누진통, 이것은 레이더망이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레이더망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책정을 다 하고 결정을 지어서 연락을 합니다.

그렇듯이 한마음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하면 맡겨 놓는 자체의 음파가 누진으로 울려 갑니다. 누진으로 인해서 사대도 다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모든 작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모습, 즉 말하자면 의식들이 전부 화해서 될 구멍을 통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마음대로 하면서 바깥으로도 출중하게 일들을 하고 안에서도 작용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그 체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나를 새 마음으로써 용기 있는 남자, 즉 남자다운 남자로 만들 수 있다.' 창조력을 길러서

성명 통변을 위주로 공부한다!!
8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5월 28일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사주명리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분 :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분 :
- 사주보다 나은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성적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임육효, 관상, 내정법 등에 정통하신 교수님이 사주명리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7-711-224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랭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고원 명정 스님께 듣는
신심명 대강좌

통도사 극락암 분원 원오사에서는 오는 5월 26일부터 3개월 과정의 '신심명 대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신심명은 승찬대사가 쓴 불교 지침서로서 불서의 금지탑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고원 명정 스님의 신심명 재출간을 계기로 강좌를 개설하게 된 원오사 신심명 대강좌에 오셔서 귀한 법을 인연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통도사 극락암 분원 원오사
주지 정광 합장

강의주제 : 신심명(信心銘)
강의기간 : 2009년 5월 26일 ~ 8월 25일 (3개월 과정)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업료 : 10만원
문의 : 원오사 051)542-7949

대안불교조계종 통도사극락암분원 원오사
612-8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5-28번지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에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류.

비언니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코리크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코리크.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